



특집 08

스마트워크 서비스 플랫폼과 활용



김평중 (충북도립대학)

-
- 목 차 »
1. 서 론
 2. 스마트워크의 국내외동향과 중요성
 3. 스마트워크 서비스 플랫폼과 요소기술
 4. 스마트워크 활용
 5. 결 론
-

1. 서 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난해 11월에 공개한 『워크스마트 실천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를 ‘창의 기반 생산성의 제고’에 있다고 상정하고, 이를 위한 모델로 ‘워크 스마트’를 규정한 뒤, SMART 모델의 관리 영역을 Space(공간), Method(방식), Acquaintance(지식), Result(성과), Time(시간)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와 연관성을 분석한다. 창의 기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 학습, 자유와 자율성, 성과와 보상, 본질 집중, 및 리스크 감수와 혁신 등 5가지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5가지 요인은 SMART 모델의 5가지 요소의 혁신으로 조절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¹⁾.

스마트워크(smart work)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무실

로 출근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통해 원격근무를 하는 형태다. 정부는 스마트워크 방식을 공무원과 민간 기업에 대폭 확산시키기로 하고,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 중 30%(약 800만 명)가 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수도권 근로자는 90분의 출퇴근 시간이 절감되고, 연간 111만 톤의 탄소배출량과 1조 6천억 원의 교통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²⁾.

스마트 워크란 (그림 1)과 같이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개념을 뜻한다. 스마트 워크에는 재택근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워크 센터(원격근무) 등이 포함된다.

재택근무는 회사 안에서 일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환경으로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근무



(그림 1) 스마트워크 정의

형태이다. 이는 가iga인터넷 기반 회사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고, 스마트TV를 활용하여 협업을 위한 실감형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이다. 텔레프레즌스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스마트워크 센터(원격근무)는 주거지 인근의 스마트워크 센터를 통해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가iga인터넷 기반 회사 업무 시스템 이용하는 것으로 육아시설, 휴식공간, 세무·회계자문 등의 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공유를 통한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모바일 오피스는 현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무처리 속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어디서든 실시간 사내 커뮤니케이션 및 전자 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스마트워크의 국내외 동향과 중요성

세계는 지금 스마트 사회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선진 각국들은 사물·시스템·프로세스 등을 지능화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의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는 스마트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가정에서는 스마트 홈(smart home)이 실현되고, 이동 중에는 스마트 모바일(smart mobile)을, 직장에서는 스마트워크

와 스마트 비즈니스(smart business)를 향유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똑똑하고 세련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접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가 내재되어 똑똑해진 사물로부터 인간의 삶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영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사회, 스마트 라이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전반에 스마트 ICT 기술이 접목되어 똑똑한 서비스를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³⁾.

스마트워크의 국내외 주요 추진 동향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는 2007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49%가 원격근무 체도를 운영하고 있고, 암스테르담 근교를 비롯한 전국 99개 스마트워크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미국은 2016년까지 근로자의 43%가 원격 근무할 것으로 전망하고, 2009년 연방정부의 50%인 94,000명이 원격근무 중이고, 2010년 정보통신 기반 원격근무 활성화 법안을 상원 통과하였다. 일본은 2010년까지 취업인구 20%까지 원격근무로 확대하고 있고, ‘원격근무 환경정비세제’ 등 원격근무 도입 촉진 지원책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안)을 발표(‘10.7.21)하고, 2015년까지 전체 공무원 및 노동인구의 30% 수준을 도입할 예정이고, 스마트워크센터 500개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워크의 중요성을 사회 현안을 통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근로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②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05년 9.1%에서, ‘20년 15.6%.

'50년 38.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OECD)로 근로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국가차원에서 고령자의 파트타임 고용을 적극 장려하는 등 고령자 고용률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프랑스는 비영리조직에 임시직·파트타임으로 50대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③ 여성의 경력 중단 없는 경제활동 참여, 고령자·장애인의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 등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둘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선진기업들은 다양한 WLB 프로그램을 도입·운영 중에 있다. 파나소닉은 e-Work@Home 근무제를 통해 5천명의 직원이 재택근무('08년 10월) 중에 있고, Sun Microsystems는 전 직원의 40%가 'Open Work'(재택근무제)에 참여하고 있고, 대응계약, KT,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도 재택근무, 야근 금지, 보고서 양식 간소화 등 업무방식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② 사회 각 분야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장은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장 시간 근로국가이면서, 국민의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68위(New Economics Foundation, 2009)로서, 서울 직장인 78%는 일과 삶의 불균형으로 건강과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스탠다드차타드, 2010)되고 있다.

셋째,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은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EU는 산업부문의 감축잠재량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통부

문의 감축정책 중요시하고 있고, 교통부문에서 EU는 '30년까지 20%, 일본은 '10년까지 15% 감축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90년부터 '07년까지 연평균 4.7%씩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권 대도시 주변의 경우, 출퇴근 차량이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지·정체가 반복되어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14조5000억 원으로 전국 혼잡비용의 54.4% 차지, 교통부문의 에너지소비는 도로가 79%(조선일보, '10.7.9)로 조사되고 있다.

3. 스마트워크 서비스 플랫폼과 요소기술

1995년 MIT 미디어랩 소장이었던 네그로폰테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산업시대에는 대량생산이 일어나지만 비트(bit)가 주도하는 정보 시대에는 작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생산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이후에 오는 탈정보화 시대의 생산은 단 한 사람을 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지금이 바로 탈정보화 시대이고, ‘단 한 사람’을 위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즉, ‘개인화(personalization)’야말로 스마트 시대의 핵심 본질이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은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용량, 더 높은 집적도를 추구했다. 그에 비해 스마트 시대의 핵심은 기술 자체의 발전이 아니라 기술을 보는 인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즉 더 빠른 기술, 더 수준 높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더 좋은 기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답은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인 ‘인간의 다양성’과 직결된다. 제아무리 고도의 신기술도 그것을 이용하는 개인에 따라서 용도와 만족도가 바뀌거나 변하기

때문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7채널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은 의미가 없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화질 HDTV가 무슨 소용이며, 색맹인 사람에게 선명한 칼라TV는 무용지물이다⁵⁾.

요컨대 ‘스마트’하다는 것은 각 개인의 조건과 수준, 놓인 처지에 따라 더 많은 만족과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스마트폰이 ‘스마트’한 진정한 이유와 의미가 존재한다. 아이폰의 기본 메뉴에는 전화, 웹서핑, 메시지, 그리고 뮤직플레이어 밖에 없다. 나머지 기능은 개별 사용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쓸 것만 골라서 다운받아 쓰면 된다. 필요할 법한 프로그램들을 무수히 구비해두고 필요한 대로 제공해주는 ‘맞춤 시장’이 바로 ‘앱스토어’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각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라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인 것이다. 소비자의 니즈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상품 기획자가 아닌 소비자 자신이다. 개인들이 원하는 기능만 설치해서 쓰고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똑똑한’ 기계, 그래서 ‘스마트’ 폰인 것이다.

‘개인화’된 요구를 맞춤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똑똑함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 ‘스마트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수많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많은 공급자’들이다. 산업 시대에는 생산설비나 대량생산 장비를 갖춘 ‘소수의’ 기업들이 ‘공급자’의 전부였다. 이들은 규격화된 제품을 양산했고, 소비자들은 공급자들이 만든 스펙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필요에 비교적 좀 더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구조였다. 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공급되는 모델에 한해서만 고를 수 있는 ‘제한된’ 선

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스마트폰의 어플들을 생산하는 주체는 ‘소수의’ 단말기 제조사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과 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개발자들’이다.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공급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가? 그 정보 전달의 매개체가 개인과 개인이 ‘관계로 연결된(social)’ 인맥망, 바로 소셜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적 기반(인프라)이 바로 ‘플랫폼’이다.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유포하고, 급박한 사고 현장 사진을 트위터로 실어 나른다. 아이폰으로 공연이나 강의 동영상을 생중계하고, 페이스북을 이용해 사회 이슈에 대한 집단 토론과 시민행동을 조직한다. 이와 같이 트위터, 구글(유튜브), 아이폰, 그리고 페이스북을 합해 사람들은 TGIF라 부른다. TGIF야말로 소비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집단의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주고받는 새로운 ‘집단 지성의 유통’ 플랫폼인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엄밀히 따지면 콘텐츠나 가치의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의 매개 역할을 맡는다. 왜 가치의 생산자와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수단이 분리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수의 소비자와 그들의 다양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스마트 시대의 특성 때문이다. 모두가 한 가지의 제품과 획일적인 기능을 받아들이는 규격화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수 공급자의 제한된 모델로 수많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기능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은 낭비일 뿐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게는 아주 적은 수의 수요만을 갖고 있어서 개발

해봐야 크게 돈이 되지 않는 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시장만을 목표로 삼는 기업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영어만을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어 사전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은 과잉이자 낭비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플랫폼 제공자와 집단지성에 기반을 둔 공급자들 사이에 새로운 공생 협력 관계가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다.

스마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은 스마트워크의 특성상 개방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스마트워크의 응용서비스들의 상호 운용성 제공 및 각 구성요소들을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다.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은 통신사의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등의 인프라와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및 1인 기업의 웹컨퍼런싱, 협업도구(Unified Communication, UC 포함), 모바일오피스, 업무용 앱, 보안·인증 등의 솔루션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림 2)와 같다.

스마트워크 요소기술은 언제 어디서나(anytime, anywhere)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일을 하기 위한 통합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unified communication 기술(직원들간 의사소통을 위한 그룹웨어, 메신저, e-mail 등), 타인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SNS와 협업 기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QoS

를 지원하는 network support, 기업 기밀 유지를 위한 보안과 관리 기술, 이동 중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mobile support(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내 업무 서비스 접근 등), 스마트한 작업 환경을 위한 단말, BPM, UI/UX 기술, 실제와 같은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telepresence 기술(고품질 화상회의 등)과 실감/몰입 기술 등이다. 현존하는 모든 기술들의 총합체인 것이다.

4. 스마트워크 활용

‘스마트 워킹’은 ‘스마트’한 사고에서 시작된다. 어떤 주제를 놓고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회의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놓고 벌여야 하는 미팅, 또는 집체 교육과 같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하기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같은 사무 공간에 모여서 함께 일해야 생산성이 높게 나온다는 미신은 이제 깨져야 한다. 실제로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 방식 등을 통해 유연근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주위로부터 불실하다는 비판이나 평가를 받을 것을 의식해서 사무실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된다는 조사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러나 ‘결과 기반의 평가 시스템(ROWE)’을 과감하게 도입한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 타 기업보다 더 좋은 경영 실적을 낳고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 구성비를 보면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블루칼라를 앞선 지 이미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화이트칼라의 업무 구조 및 성과 평가 방식을 그들의 과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이들의 생산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다른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여성 및 외국인 인력의 역할과 구성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 2)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성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와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 진화로 인해 업무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스마트 워킹이란 용어는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4].

스마트 워킹을 업무 일선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과거의 업무 구조와 프로세스, 관성화된 근무방식과 관행적인 평가 시스템에 익숙한 경영진의 사고 전환이다. 스마트 워킹은 단지 전 직원들에게 전사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급하거나 트위터나 SNS 사용을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조치나 행동만으로 조장되고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영 활동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하려는 경영진의 시도와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사무 공간의 개선을 비롯해서,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 사내외 지식공유 시스템 구축, 아울러 기존의 성과관리 및 보상 시스템의 혁신 등이 총체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스마트워킹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6].

4.1 인터넷 웹하드와 클라우드 파일공유시스템 활용

원격 업무 수행의 기본 조건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서버 등의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 전송망을 통해 공중을 자유롭게 떠도는 구름처럼 원하는 정보나 자료를 어디서든 내려 받아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인의 로컬 시스템 대신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인터넷망으로 파일을 다운받아 쓰는 것이 기초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 유형이다.

최근에는 워드나 엑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 또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상에서 구동함으로써 응

용 프로그램을 개인 PC에 일일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독스]가 대표적이며, 이에 맞서 경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이 손잡고 제공하는 [독스닷컴] 서비스가 있다. 이들 웹기반 오피스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됨으로써 그동안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서 각자의 PC에 설치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웹에서 공짜로 가능해졌다. 아직은 통신 속도나 서버상태에 따라서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처리 속도도 느린 편이라 일상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전송 기술이 발전할수록 클라우드 컴퓨팅은 확산될 것이다. 머지않아 PC에 자료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 자체가 사라지는 날이 올 수 있다.

응용프로그램을 웹에서 구동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장소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네이버의 [N드라이브]와 KT의 [U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N드라이브(<http://ndrive.naver.com>)는 기존에 사용하던 '웹하드' 서비스와 거의 유사하다. 집에서 작업한 파일을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다운받아 쓸 수 있으므로 USB 메모리 스틱이 따로 필요 없다. 웹폴더를 만들어두고 PC의 탐색기처럼 파일의 저장(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작업한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 네이버에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10기가의 용량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KT가 제공하는 유클라우드 서비스는 웹하드 수준에서 한발 더 나간 형태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개인 PC에 있는 폴더들 중 원하는 폴더들을 지정하여 폴더 전체의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고 백업 폴더를 만들어준다. 즉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2대의 PC에 [유클라우드 매니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각각의 PC에서 지정한 폴더를 서버 상에 백업해두고 문서 작업 중에 자동으로 동기화

시킴에 인터넷 접속만하면 어디서든 원격지에 있는 PC의 파일을 백업 서버에서 불러올 수 있다. [매직폴더]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한 서버에서 작업한 파일 내용을 나머지 로컬 PC들에게 동시에 저장시켜주기도 한다. 즉 같은 파일을 분산된 개별 PC 속에다 나누어 저장해두는 셈이다. 실시간 동기화 기능이 제공되므로 어느 곳에서 접속하든 최근에 작업한 내용에 이어서 추가 작업이 가능하다.

4.2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활용

뉴스 블로그나 개인 파워블로거의 블로그 사이트에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나에게 보내주게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이 같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된 웹 기술이 바로 RSS이다. 웹을 통해서 작성된 문서를 간단한 표준 규약에 따라서 해당하는 글이 올라오는 사이트의 주소만 등록해두면 그 안에 올라오는 새 글을 자동으로 내 PC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 안으로 푸시 방식으로 보내준다. 보통 웹에서는 MS아웃룩이나 RSS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이 각자 필요한 주소(피드URL)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한RSS(<http://www.hanrss.com>)’ 처럼 웹페이지 안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생성하여 분류해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신의 로그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블로그나 사이트를 등록해 두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함께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공유의 제한을 벗어나려면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RSS를 통해 수집된 문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카페의 [RSS 게시판] 기능이 있다. RSS 게시판은 일반 게시판과는 달리 웹상의 공유 문서 포맷을 지원하는 각종 뉴스 사이트나 블

로그 사이트들의 RSS 주소 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페이지에 새로 등록된 글을 자동으로 호출하여 올라온 순서대로 보여준다. 원하는 주제별로 RSS 게시판을 생성하고 각 게시판별로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RSS 피드 주소를 추가해두면 그 자체로 훌륭한 정보 공유 스크랩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4.3 소셜북마크 서비스 활용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다가 좋은 사이트나 쓸 만한 정보가 들어있는 웹페이지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 페이지를 다시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보통 [즐겨찾기]를 해둔다. 하지만 웹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를 해두면 개인적인 스크랩이 되고, 그나마도 자신의 PC에만 기록이 남게 되어 사무실에서 집으로 이동하거나 외부로 나가게 되면 기껏 즐겨찾기를 해둔 북마크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어 다시 검색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런 경우 장소에 구애 받지 않도록 즐겨찾기 목록 자체를 개인 PC의 웹 브라우저가 아닌 웹 사이트 자체에 남겨놓은 방법은 없을까? 또 이렇게 웹사이트에 기록된 즐겨찾기를 친구를 맺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줄 수는 없을까? 물론 가능하다. 이런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보통 ‘소셜 북마크’ 서비스라 부른다. RSS 피드 공유 기능과 더불어 웹상의 검색 정보를 함께 나누는 매우 유용한 방법인데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다. 이 같은 소셜북마크 서비스의 효시로 가장 널리 알려진 서비스는 야후가 인수하여 제공하고 있는 ‘덜리셔스(<http://www.delicious.com/>)’가 대표적이고, 한글로 제공되는 ‘마가린(<http://mar.gar.in>)’ 등이 있다. 마가린은 가입만 하면 간단한 마우스 드래그만으로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를 북마크 시킬 수 있는 [마가린에 북마크하기]

버튼과 북마크해 놓은 목록을 호출하는 [내 마가린] 버튼을 웹브라우저의 도구 메뉴줄 안에 추가할 수 있다.

4.4 슬라이드셰어닷컴 활용

업무상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적당한 슬라이드 편집 아이디어나 도표, 이미지 자료 등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일이 웹을 검색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나 이미지 등을 찾아다니다 보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허비된다. 이럴 때 이미 유사한 주제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의 발표 자료를 샘플로 입수해서 비교해보면 훨씬 빨리 좋은 이미지나 자료의 소스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없을까? ‘슬라이드셰어닷컴(<http://www.slideshare.net/>)’은 ‘슬라이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위키피디아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지식공유 사이트이다. 유튜브가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싶은 각종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올려서 공유하는 곳이라면, 슬라이드셰어닷컴은 전 세계에서 문서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협력하여 자신의 지적 저작물을 공유하는 곳이다.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이미지화시킨 pdf 포맷의 파일이 주종을 이루지만 파워포인트 원본이 공유되기도 한다. 올린 사람이 설정한 옵션에 따라서 사이트 내에서만 구동되는 것들도 있지만,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각자 자신의 로컬 PC에 문서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페이스북의 담벼락에 해당 문서의 링크 주소를 공유할 수 있고, 해당 슬라이드를 이메일로 바로 전송할 수도 있다. 나아가 트위터처럼 팔로우 개념을 도입하

여 특정한 사람의 슬라이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싶을 경우 해당하는 사람을 [팔로우]해 놓으면 그 사람이 새로운 문서를 올릴 경우 이메일로 새로운 문서가 올라왔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업무상 프리젠테이션용 슬라이드를 자주 만들거나, 해외 시장동향 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하는 사람은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스마트워킹을 할 수 있다.

5. 결론

스마트는 단어로만 보면 ‘똑똑한’의 의미를 가진 수식어에 불과하다. 하지만 ‘스마트’의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도 않고, 범위 또한 정보 통신이나 방송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좁게는 ‘기기의 동작방식’이나 라이프스타일,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를 뜻하지만 넓게는 경영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까지를 포괄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바로 ‘워크 스마트’ 또는 ‘스마트 워킹’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표되는 ‘스마트 시대’의 핵심 주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비롯한 각종 모바일 기기, 그리고 그와 연계된 원격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사무실과 집, 작업 현장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 즉 ‘똑똑한’ 업무방식과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이 ‘스마트 워킹’의 기본원리이다.

성공적 스마트워크 도입은 첫째,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기업군이나 직군을 선택하여 단계적인 도입 추진이 바람직하다. 한국전산원 조사(NIA, 2008.8)에 따르면 책상근무가 90% 이상인 근로자 42%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무리한 도입 추진은 오히려 스마트워킹의 해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기업들의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

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도입 기업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야 하고, 개방형 스마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워크 서비스 시장이 확대해야 한다. 셋째, 초기 도입 비용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보급형 스마트워크모델 개발과 클라우드 기반의 임대형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시장 주도의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선순환 체계 정립이 필요하고, 건전한 시장생태계, 중소기업 도입 촉진, 및 해외진출도 활성화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삼성경제연구소, “워크스마트 실천방안 연구,” 2010. 11.
- [2] 기획재정부, <http://terms.naver.com/item.nhn?dirlid=3501&docid=2474>
- [3] 김성태,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 정보와 통신, pp.9-14, Jan., 2011.
- [4] NIA, “일하는 방식의 대혁명적 변화 ‘스마트워크,’” Smartwork Insight 제1호, p.29, Nov., 2010.
- [5] 최규문, “스마트워크④ - 패러다임의 재설계”, The Banker, pp.62-69.
- [6] 최규문, “스마트워크⑤ - 똑똑한 업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The Banker, pp.66-71.

저 자 약 력



김 평 중

이메일 : pjkim@cpu.ac.kr

- 1985년 충남대학교 계산통계학과(학사)
- 1995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석사)
- 2000년 충남대학교 컴퓨터학과(박사)
- 2004년~2005년 Wright State Univ. Post-Doc.
- 1995년 전자계산기조작용기술사
- 2008년 재난관리지도사
- 1987년~1988년 포항종합제철 전산기술직원
- 1988년~199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1998년~현재 충북도립대학 컴퓨터정보과 교수
- 관심분야: 이동에이전트, 네트워크멀티미디어, 재난 정보통신